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김리진* 홍연애**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Job
Stress of Childcare Teachers

Kim, Lee Jin Hong, Yeon Ae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이해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대전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192명의 보육교사들이다. 자료 분석은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빈도, 평균, 표준편차), 내적합치도(Cronbach's α),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과 직무스트레스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은 높았으며, 직무스트레스는 낮았다. 둘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의 낙관적 사고와 분노조절, 심리적 안녕감 중 환경통제력이 직무스트레스 전체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량의 46%를 설명하였다. 이는 보육교사가 낙관적 사고를 하고 분노조절을 잘 할수록, 또한 환경에 대한 통제를 잘 할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보육정책과 보육교사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주제어 :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 고려대학교 사회정서발달연구소 연구교수 / 제1저자

** 대덕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교신저자(yahong@ddc.ac.kr)

I. 서론

2012년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이 실시됨에 이어, 2013년부터는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유아기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공통과정에 대한 도입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한국유아교육학회, 2012). 양질의 보육을 위해서는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과정만큼이나, 유능한 보육교사가 필요하다(최인수, 송미연, 2002).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능력과 흥미에 맞게 유익한 영유아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보육을 구성하는 다른 어떤 요소 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입장은 선행연구들에서도 이미 보육교사가 성공적인 보육서비스를 위한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동의하고 있다(정효정, 2003; 홍금자, 2002). 보육교사라는 직업은 직업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갖는 직업군으로 분류된다(Kovess-Masfety, Rios-Seidel, & Sevilla-Dedieu, 2007). 이처럼 보육서비스에 있어 보육교사의 주요한 영향력에 비하여 보육교사는 낮은 사회적 인식과 과중한 업무, 저임금 등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조성연, 구현아, 2005). 하지만, 모든 보육교사들이 스트레스로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로 인해 심리적 부적응을 겪거나 불행한 것은 아니다. 어떤 보육교사는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심리적 안녕을 바탕으로 교직생활을 잘 유지하며, 그 과정을 통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이처럼 같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Faser, Kirby, & Smokoski, 2003).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송진숙, 김규수, 송진영, 2010; 정혜옥, 이옥형, 2011; 조성연, 이정희, 2010),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고,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보육교사 자신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이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 보다 직무스트레스를 적게 받았으며, 원장과 동료교사로부터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았다. 이렇듯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심리적 특성인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영유아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설혜정, 이소희, 1999). 즉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적절히 해소되지 않았을 때, 이는 그들의 지각 체계의 반응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일에 대

한 동기나 의욕을 약화시킴으로써,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육교사의 반응성이나 민감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영유아와의 관계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민규, 2001).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무스트레스와 개인내적 특성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자아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이란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적합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급성 또는 만성적인 주요 스트레스 사건에 잘 대처하거나, 외상적인 사건으로 부터 빠른 회복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Masten, Hubbard, Gest, Tellegen, Garmezy, & Ramirez, 1990). 또한 Gu와 Day(2007)에 의하면 교사에게 있어 자아탄력성은 어려운 상황에도 안녕을 되찾고, 교직을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떤 교사들은 교사직을 그만두지만, 어떤 교사들은 교사직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스스로 극복해가는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지만, 스트레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부적응 사태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역경을 잘 견디고 회복해서 힘을 얻고 자원을 풍부하게 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성취하기도 한다.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상황에 따라 긴장과 인내의 수준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조절능력이 높기 때문에 성공적인 적응을 할 수 있다. 반면 자아가 경직된 사람은 이런 조절능력이 낮아서 낮은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반응의 융통성이 부족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Block & Kremen, 1996).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상황을 스트레스로 덜 지각하며, 일단 어떤 상황이 스트레스로 지각되더라도 이로 인해 불안이나 우울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지연, 2011). 또한, 자아탄력성은 직무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므로(정혜옥, 이옥형, 2011), 보육교사가 지니는 자아탄력성에 따라 긍정적·부정적 정서경험의 정도와 안녕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은 보육교육현장에서 당면하는 여러 문제 상황으로 부터 보육교사가 받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경험에서도 긍정적 정서상태를 유지하여 맥락에 적합한 교수활동이나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특성으로 기능한다(박서연, 정영숙, 2010). 보육교사가 지닌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 교수권한, 직무조건, 대인관계 등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김인숙, 2009), 또한 낙관성과 적극적 대처방식의 사용이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심리적 특성이라고 선행연구들(Smith & Zautra, 2008; Tugade & Fredrickson, 2004)에서 밝히고 있다. 이는 보육교사-유아의 상호작용과 보육의 질로 연결

되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변인이다.

최근들어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심리적 안녕감은 주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진다.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이란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심리적 측면으로, 개인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간의 반응을 의미한다(차경호, 2004). Ryff(1989)가 개념화한 심리적 안녕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과 신뢰로운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며, 스스로의 원칙이나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변 환경에 대해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과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정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소질을 키워가는 것은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이다(양병한, 2003). 보육교사의 안녕감(well-being)은 보육교사 자질의 질적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이채호, 고태순, 2008).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지현, 2006). 또한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이직의도의 하위요인인 직무관련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영역인 자율성과 삶의 목적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유현정, 2011).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현정과 박진성(2010)의 연구에서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은 매우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은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변인들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가 요구된다(이채호, 고태순, 2009).

그러나 최근까지 이루어진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교사효능감, 직무만족도, 사회적 지지, 직무소진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을 뿐 보육교사의 개인내적 특성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보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의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탐구해보고,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및 직무스트레스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2.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 및 대전 지역의 25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어린이집의 시설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200명의 보육교사가 설문에 응답하였으나 문항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8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192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 중 한 명을 제외하고 191명이 여자였으며, 평균 연령은 30.25세였고, 학력은 1년제 양성과정(17.2%), 2년제 전문학사(36.2%), 3년제 전문학사(14.4%), 4년제 학사(32.2%)였고, 평균 보육교사 경력은 4년 3개월이었다. 각 기관의 어린이집의 유형을 살펴보면, 국공립(39.8%), 민간(49.7%), 직장(1.7%), 가정(8.9%)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척도는 Klohnen(1996)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박현진(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네 개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사고’와 ‘분노조절’로 총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2로 나타났다.

2)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개발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여섯 개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환경통제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긍정적 대인관계’와 ‘자아수용’으로 총 4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0으로 나타났다.

3)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척도는 Wilson(1979)의 ‘Stress Profile for Teacher(SPT)’를 안경애(2007)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일곱 개의 하위요인인 ‘유아로 인한 스트레스’, ‘동료관계에 인한 스트레스’, ‘원장에 의한 스트레스’, ‘부모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심리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신체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8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인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 계수를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이 직무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및 직무스트레스의 일반적인 경향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사고, 분노조절), 심리적 안녕감(자율성, 환경통제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 및 직무스트레스(유아, 동료, 원장, 부모, 업무,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의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변인의 문항수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점수를 문항 수로 나누어 비교하였다(<표 1>).

<표 1>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및 직무스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 (N=192)

변인	구분	M	SD
자아탄력성	자신감	3.55	.47
	대인관계효율성	3.42	.60

	낙관적사고	3.66	.52
	분노조절	3.08	.74
	전체	3.43	.45
심리적 안녕감	자율성	3.24	.39
	환경통제력	3.32	.40
	개인적 성장	3.50	.44
	삶의 목적	3.57	.48
	긍정적 대인관계	3.65	.50
	자아수용	3.35	.43
	전체	3.44	.33
	직무 스트 레스	유아로 인한 스트레스	2.39
동료 관계에 의한 스트레스		2.15	.60
원장에 의한 스트레스		2.10	.64
부모로 인한 스트레스		2.15	.67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3.09	.76
심리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2.65	.65
신체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2.92	.89
전체		2.49	.47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과 직무스트레스는 5점 리커트 척도 구성되었다. 자아탄력성 전체 평균은 3.43($SD=.45$)로 높았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낙관적 사고($M=3.66$, $SD=.52$)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신감($M=3.55$, $SD=.47$), 대인관계 효율성($M=3.42$, $SD=.60$), 분노조절($M=3.08$, $SD=.74$)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 전체 평균은 3.44($SD=.33$)로 높았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긍정적 대인관계($M=3.65$, $SD=.50$)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삶의 목적($M=3.57$, $SD=.48$), 개인적 성장($M=3.50$, $SD=.44$), 자아수용($M=3.35$, $SD=.43$), 환경통제력($M=3.32$, $SD=.40$), 자율성($M=3.24$, $SD=.39$)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직무스트레스 전체 평균은 2.49($SD=.47$)로 낮았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M=3.09$, $SD=.76$)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신체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M=2.92$, $SD=.89$), 심리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M=2.65$, $SD=.65$), 유아로 인한 스트레스($M=2.39$, $SD=.62$), 동료로 인한 스트레스($M=2.15$, $SD=.60$), 부모로 인한 스트레스($M=2.15$, $SD=.67$), 원장에 의한 스트레스($M=2.10$, $SD=.64$) 순으로 나타났다.

2.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직무스트레스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회귀모형의 적합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Dubin-Watson 검증치와 분산팽창인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확인하였다. Dubin-Watson 검증치는 직무스트레스 전체는 1.700,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유아로 인한 스트레스는 1.811, 동료 관계에 의한 스트레스는 1.698, 원장에 의한 스트레스는 1.480, 부모로 인한 스트레스는 1.728,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1.808, 심리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1.950, 신체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1.575로 모두 2에 가까워 각 변인은 서로 독립적이고 동일한 변량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VIF 값은 1.38~1.53로 나타났으며 1에 가까워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인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사고, 분노조절과 심리적 안녕감 하위변인인 자율성, 환경통제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전체와 하위변인(유아, 동료, 원장, 부모, 업무,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표 2>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직무스트레스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예언변인		<i>B</i>	β	<i>t</i>	<i>R</i>	R^2_{adj}	<i>F</i>
직무 스트레스	자신감	.010	.010	.118	.70	.46	17.041***
	대인관계 효율성	-.084	-.108	-1.371			
	낙관적 사고	-.297	-.333	-3.670***			
	분노조절	-.119	-.187	-3.148**			
	자율성	.008	.006	.097			
	환경통제력	-.201	-.170	-2.286*			
	개인적 성장	.070	.065	.904			
	삶의 목적	-.020	-.021	-.240			
	긍정적 대인관계	-.131	-.140	-1.941			
자아수용	-.067	-.061	-.803				
유아로 인한 스트레스	자신감	.040	.030	.301	.55	.27	7.844***
	대인관계 효율성	-.157	-.153	-1.670			
	낙관적 사고	-.323	-.274	-2.591*			
	분노조절	.025	.030	.428			

	자율성	-.049	-.031	-.402			
	환경통제력	-.114	-.073	-.843			
	개인적 성장	-.061	-.043	-.516			
	삶의 목적	.001	.000	.004			
	긍정적 대인관계	-.081	-.066	-.786			
	자아수용	-.150	-.103	-1.170			
동료관계에 의한 스트레스	자신감	-.125	-.098	-1.044			
	대인관계 효율성	-.144	-.145	-1.691			
	낙관적 사고	-.247	-.216	-2.195*			
	분노조절	-.013	-.016	-.246			
	자율성	.041	.026	.373	.63	.36	11.696***
	환경통제력	-.203	-.135	-1.665			
	개인적 성장	-.020	-.015	-.190			
	삶의 목적	.051	.041	.442			
	긍정적 대인관계	-.245	-.206	-2.620*			
	자아수용	-.058	-.042	-.504			
원장에 의한 스트레스	자신감	-.086	-.064	-.653			
	대인관계 효율성	.000	.000	.003			
	낙관적 사고	-.406	-.332	-3.264**			
	분노조절	.013	.015	.223			
	자율성	.126	.076	1.042	.59	.32	9.801***
	환경통제력	-.037	-.023	-.271			
	개인적 성장	-.009	-.006	-.073			
	삶의 목적	-.012	-.009	-.092			
	긍정적 대인관계	-.425	-.333	-4.103***			
	자아수용	.062	.041	.482			
부모로 인한 스트레스	자신감	-.021	-.015	-.149			
	대인관계 효율성	-.105	-.095	-1.056			
	낙관적 사고	-.261	-.204	-1.980*			
	분노조절	-.026	-.029	-.424			
	자율성	.077	.045	.603	.58	.30	9.060***
	환경통제력	-.169	-.100	-1.180			
	개인적 성장	.108	.070	.864			
	삶의 목적	-.120	-.086	-.881			

	긍정적 대인관계	-.367	-.276	-3.350**			
	자아수용	-.036	-.023	-.265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자신감	.173	.108	.971			
	대인관계 효율성	-.037	-.030	-.294			
	낙관적 사고	-.237	-.164	-1.415			
	분노조절	-.236	-.229	-3.015**			
	자율성	-.042	-.021	-.255	.40	.12	3.480***
	환경통제력	-.439	-.230	-2.419*			
	개인적 성장	.246	.141	1.543			
	삶의 목적	-.121	-.077	-.702			
	긍정적 대인관계	-.022	-.015	-.157			
	자아수용	.162	.091	.944			
심리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신감	-.078	-.057	-.544			
	대인관계 효율성	-.036	-.033	-.349			
	낙관적 사고	-.290	-.235	-2.151*			
	분노조절	-.155	-.175	-2.452*			
	자율성	-.026	-.016	-.200	.51	.21	6.166***
	환경통제력	-.244	-.149	-1.665			
	개인적 성장	-.031	-.021	-.241			
	삶의 목적	.031	.023	.226			
	긍정적 대인관계	.020	.015	.176			
	자아수용	-.047	-.031	-.340			
신체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신감	.169	.090	.871			
	대인관계 효율성	-.109	-.074	-.791			
	낙관적 사고	-.318	-.188	-1.743			
	분노조절	-.443	-.367	-5.196***			
	자율성	-.074	-.032	-.417	.53	.24	6.858***
	환경통제력	-.202	-.090	-1.020			
	개인적 성장	.255	.125	1.469			
	삶의 목적	.029	.016	.154			
	긍정적 대인관계	.205	.116	1.347			
	자아수용	-.401	-.193	-2.138*			

* $p < .05$, ** $p < .01$, *** $p < .001$.

직무스트레스 전체에서는 낙관적 사고($\beta = -.33, p < .001$), 분노조절($\beta = -.19, p < .01$), 환경통제

력($\beta=-.17,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 전체 변량의 46%($F=17.041, p<.001$)를 설명하였다.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유아로 인한 스트레스에서는 낙관적 사고($\beta=-.27, p<.05$)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유아로 인한 스트레스 변량의 27%($F=7.844, p<.001$)를 설명하였다. 동료관계에 의한 스트레스에서는 낙관적 사고($\beta=-.22, p<.05$)와 긍정적 대인관계($\beta=-.21,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동료관계에 의한 스트레스 변량의 36%($F=11.696, p<.001$)를 설명하였다. 원장에 의한 스트레스에서는 낙관적 사고($\beta=-.33, p<.01$)와 긍정적 대인관계($\beta=-.33,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원장에 의한 스트레스 변량의 32%($F=9.801, p<.001$)를 설명하였다. 부모로 인한 스트레스에서는 낙관적 사고($\beta=-.20, p<.05$)와 긍정적 대인관계($\beta=-.28,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로 인한 스트레스 변량의 30%($F=9.060, p<.001$)를 설명하였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서는 분노조절($\beta=-.23, p<.01$)과 환경통제력($\beta=-.23,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변량의 12%($F=3.480, p<.001$)를 설명하였다. 심리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는 낙관적 사고($\beta=-.24, p<.05$)와 분노조절($\beta=-.18,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변량의 21%($F=6.166, p<.001$)를 설명하였다. 신체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는 분노조절($\beta=-.37, p<.001$)과 자아수용($\beta=-.19,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변량의 24%($F=6.858, p<.001$)를 설명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사고, 분노조절), 심리적 안녕감(자율성, 환경통제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 및 직무스트레스(유아, 동료, 원장, 부모, 업무,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고,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과 직무스트레스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은 높은 편이었고, 직무스트레스는 낮은 편이었다. 즉,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보육교사들 스스로 탄력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자아탄력성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낙관적 사고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분노조절 순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들은 낙관적이고, 자신감이 있으며,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이며,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분노조절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사가 낙관적 태도를 지니게 되면 업무를 수행할 때 보다 여유를 갖고 보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을 살펴본 유지연(2010), 이정희와 조성연(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조성연과 이정희(2010)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 하위요인 중에서 자신감이 가장 높았고, 낙관적 태도, 대인관계 효율성, 분노조절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들의 낙관적 태도와 자신감이 높다는 것은 보육교사들이 보육현장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육에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 중 자신감과 낙관적 태도가 심리적인 소진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심순애(2007)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이 분노조절에 대한 자아탄력성이 낮은 데에는 어린이집의 열악한 물리적인 환경에서 감정조절의 어려움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자아탄력성은 비교적 안정성을 갖는 심리적 변인이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의 증진은 보육교사로 유아교육기관에 취업된 이후 뿐 아니라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대학 교육과정 중에서 자아탄력성 증진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Mau, Ellisworth, & Hawley, 2008; Stoalard & Lehman, 2004). 이에 최근 대학생을 위한 자아탄력성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높아 실험적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이은석, 2010),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유아교육기관에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은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긍정적 대인관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자아수용, 환경통제력, 자율성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 중 긍정적 대인관계는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지쳐 심리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은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가장 높게, 긍정적 대인관계가 가장 낮게 나타난 유현정(2011)의 연구와 서현주(2006)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높다는 것은 보육교사 자신의 환경을 잘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여 변화시키며, 주위에 있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예비교사가 인식하는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감은 높게 나타난 박유진(2012)의 연구와는 일치하였다. 예비교사의 자율성은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집단이 개인 간 상호의존을 강조하고, 집단의 규칙이나 규범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 문화 때

문으로 해석된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났는데, 송미선과 김소양(2009), 그리고 조성연과 이정희(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신체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심리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유아로 인한 스트레스, 동료로 인한 스트레스, 부모로 인한 스트레스, 원장에 의한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들이 어느 정도의 직무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육교사들이 업무관련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보고 한 유지연(201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처럼 보육업무는 직업적 특성상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스트레스 전체 점수가 낮은 이유는 보육교사들의 인격적 성숙을 바탕으로 교직에 대한 보람과 같은 심리적 안녕감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아탄력성의 낙관적 사고와 분노조절,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중 환경통제력이 직무스트레스 전체를 부적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가 낙관적 사고를 하고 분노조절을 잘 할수록, 자신이 처한 환경을 잘 통제할수록 직무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에 의해 부적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 정도에 따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조성연과 이정희(2010) 연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정혜옥과 이옥형(2011)의 연구결과에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과 직무만족도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아동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는 소진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진혜, 강현아, 2012). 또한 낙관성이 높은 예비유아교사는 낮은 사람보다 스트레스가 적었으며(박영신, 2012),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옥형, 2012). 자아탄력성이 보육교사의 이직률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Gu & Day, 2007)에서, 영유아보육 현장에 적합하며 적용가능한 영유아 보육교사를 위한 자아탄력성 증진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안영혜, 김형재, 홍순옥, 2013).

또한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은 직무스트레스에 부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보육교사 업무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신현정과 박진성(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낮으며,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낮다고 보고 한 박지현(2006)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다. 또한 유현정(2011)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이직의도의 하위요인인 직무관련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영역인 자율성과 삶의 목적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강재희, 김진영, 2013)에서 이직의도를 예측하는 설명력이 가장 높은 직무만족 하위변인은 보육교사로서 직무수행과 원장과의 관계로 나타났다. 원장과의 관계가 이직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는 것은 서울시 어린이집 교사대상 연구(김한나, 송지연, 오유경, 최지원, 유계숙, 2011)에서도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의 생활만족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더 이상 교사 개인의 문제로 맡겨두기 보다 보육교사가 보육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스트레스원을 경감할 수 있는 실질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권연희, 2013).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 중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높을수록 영유아들에게 보육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영유아의 수준에 맞는 교육활동을 제시해 주며, 일상생활에서 보육교사가 주위환경을 조절하며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유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인은 낙관적 사고로 전체 변량의 27%를 설명하였다. 이는 보육교사가 낙관적 사고를 할수록 유아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은 것을 의미한다. 조성연과 이정희(2010)의 연구에서도 보육교사가 자신감이 높고, 낙관적 태도를 지닐수록, 대인관계의 효율성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를 적게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는 정도가 낮다는 심순애(200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아동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개인적 자원(강인성, 낙관성)은 심리적 소진과 직무열의와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특히 직무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과, 개인적 자원은 직무열의와 더 밀접한 상관을 보였다. 즉, 직무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진혜, 강현아, 2012). 동료관계에 인한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인은 낙관적 사고와 긍정적 대인관계로 전체 변량의 36%를 설명하였다. 민하영과 권기남(2009)의 연구에서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지지에 의해 정적으로 유의하게 설명되며,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역할갈등은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아탄력적인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정서경험에서의 회복력이 높고 스트레스 경험에서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Tugade와 Fredrickson(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원장에 인한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인은 낙관적 사고와 긍정적 대인관계로 전체 변량의 32%를 설명하였다. 부모로 인한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인은 낙관적 사고와 긍정적 대인관계로 전체 변량의 30%를 설명하였다. 이처럼 보육교사가 낙관적 사고를 하고,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맺을수록 동료들과의 관계, 원장

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인은 분노조절과 환경통제력으로 전체 변량의 12%를 설명하였다. 이는 보육교사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잘 조절하고 환경을 적절히 통제할수록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인은 낙관적 사고와 분노조절로 전체 변량의 21%를 설명하였다. 이는 보육교사가 낙관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분노를 잘 조절할수록 심리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인은 분노조절과 자아수용으로 전체 변량의 24%를 설명하였다. 이는 보육교사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자신을 수용하는 태도를 갖을수록 신체적 증상을 덜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첫째, 양질의 보육환경으로서 보육교사는 업무환경이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보육교사의 개인내적 특성인 자아기능과 심리적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한 보육교사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낮추어 보육대상 영유아들과 민감하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보육교사 양성과정 동안에 보육교사 스스로 자기를 이해하고, 교사관을 확립하여 심리적 만족감을 높이는 개인내적 발달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문제해결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부가적 보수교육에 적극 참여시키는 배려가 보육현장에서 필요하다(김창기, 2011). 김의향(2011)은 보육교사 개인이 자신의 교사역할에 대해 효율적이라 믿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훈련기회가 제공되어 교사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격려와 적절한 피드백을 원장이나 동료교사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아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서울과 대전지역에서 임의표집하여 사회인구학적 배경이 다양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는 후속연구에서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다양하게 하여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재희, 김진영(2013).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한국영유아보육학**, 76, 121-138.
- 권연희(2013). 보육교사의 생활만족에 대한 조직풍토,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의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74, 131-151.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 19-39.
- 김은정(2009).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효능감과 역할수행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의향(2011). 아동존중 보육실현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자질: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영유아보육의 방향과 전망.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 111-113.
- 김인숙(2010). 보육교사가 지각한 영아의 애착안정성과 사회, 정서적 행동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창기(2013).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문제중심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69, 315-336.
- 김한나, 송지연, 오유경, 최지원, 유계숙(2011). 보육교사의 교사직 지속, 이직 이유가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5(3), 91-116.
- 민하영, 권기남(2009).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사회적 정서지지와 자아탄력성 및 역할갈등 간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91-99.
- 박서연, 정영숙(2010).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및 내재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1), 167-167.
- 박영신(2012). 예비유아교사의 낙관성에 따른 스트레스 지각과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3(1), 63-80.
- 박유진(2012).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과 자아탄력성.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지현(2006).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현진(1997).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현주(2006). 어린이집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교사 효능감과의 관련성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미선, 김소양(2009). 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직무스트레스.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4), 99-119.
- 송진숙, 김규수, 송진영(2010).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12(1), 106-123.

- 설혜정, 이소희(1999). 유아교육기관내 동료 교사 간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법. **미래유아교육학회지**, 6(2), 281-315.
- 신현정, 박진성(2010). 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 탐색연구: 직무스트레스와 조직효과성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4(2), 147-170.
- 심숙영(1999). 유아교사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분석. **유아교육연구**, 19(2), 5-20.
- 심순애(2007).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경애(2007). 지체부자유학교 교사직무스트레스의 양상 및 해소 방안 연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영혜, 김형재, 홍순옥(2013). 영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창의적 인성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78, 27-53.
- 양병한(2003). 초등 교사들의 심리적 안녕감: 그 구조 및 주관적 안녕감과와의 관계. **교육학연구** 41(4), 285-309.
- 엄정애, 김혜진(2005). 유치원 종일반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아교육연구**, 25(5), 75-100.
- 유지연(2011).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가 전문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현정(2011). 보육교사의 교사 효능감,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이직의도간의 관계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민규(2001). **현대생활의 적응과 정신건강**. 서울: 교육과학사.
- 이옥형(2012).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1), 29-57.
- 이은석(2010). 자아탄력성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희, 조성연(2009).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소진과의 관계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 **한국지역생활과학회지**, 20(4), 559-570.
- 이재호, 고태순(2009).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보육효능감 및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구조모형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2), 173-185.
- 정혜옥, 이옥형(2011). 초임 유아교사와 경력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1(3), 31-53.
- 정효정(2003). 보육교사의 조직 환경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33, 273-305.
- 조성연, 구현아(2005).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아동학회지**, 26(4), 55-70.
- 조성연, 이정희(2010).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자아탄력성과과 원장, 동료의 사회적 지지.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4), 29-42.
- 차경호(2004). 한국과 미국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1(3), 321-337.
- 최인수, 송미연(2002). 24시간 어린이집 야간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직무 만족도에 관한 연구-서울과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과학**, 5, 157-175.
- 최진혜, 강현아(2012). 아동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개인적 자원이 소진 및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5), 229-249.
- 한국유아교육학회(2012). 더 나은 유아교육과정을 위한 과제와 전망, **한국유아교육학회 2012년 정기 학술대회 자료집**.
- 홍금자(2002). 보육교사 양성 교과과정에 관한 비교적 고찰. **한국영유아보육학**, 31, 287-325.
- 홍승희(2009). 지적장애 특수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소진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lase, J. J. (1986). A qualitative analysis of sources of teacher stress: consequences for performanc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3(1), 13-40.
- Block, J. H.,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Curbow, B. (1990). Job stres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Educational Review*, 53(1), 27-35.
- Fraser, M. W., Kirby, L. D., & Smokoski, P. R. (2003).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In M. W. Fraser (Ed.), *Risk & resilience in childhood* (pp. 13-66). Washington, DC: NASW Press.
- Gu, Q. & Day, C. (2007). Teachers resilience: A necessary condition for effectivenes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3(8), 1302-1316.
- Kloh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 - 1079.
- Kovess-Masfety, V., Rios-Seidel, C., & Sevilla-Dedieu, C. (2007). Teachers' mental health and teaching level.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3(7), 1177-1192.
- Masten, A., S., Hubbard, J., Gest, S., Tellegen, A., Garmezy, N., & Ramirez, M. (1990). Competence in context of adversity: Pathways to resilience and maladaptation from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1), 143-16.
- Mau, W. C., Ellsworth, R., & Hawley, D. (2008). Job satisfaction and career persistence of beginning teac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Management*, 22(1), 48-61.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mith, N. P. (2001). Teaching stress: teacher health and medical utiliz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rginia.

- Smith, B. W., & Zautra, A. J. (2008).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in women with arthritis: Test of a two factor mode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5), 799-810.
- Stoalard, J. & Lehman, M. B. (2004). Influences on satisfaction and retention of 1st-year teachers: The importance of effective school management.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40*(5), 742-771.
- Tugade, M. M., & Fredrickson, B. L. (2004). Resilient individuals use positive emotions to bounce back from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2), 320-333.
- Wilson, C. (1979). *Survey conducted in San Diego County*. San Diego, California: Development of Education.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job stress in childcare teachers. The participants were 192 childcare teachers in Seoul and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search instruments were Ego-Resilience by Park(1996), Psychological well-being by Kim(2008), and Job Stress by Hong(2009).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by descriptive statistics(frequency analysis, mean, & standard devi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d Cronbach's α for reliability by SPSS PC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ildcare teachers' perceived ego-resilience was higher than average. Childcare teachers' perceived psychological well-being was higher than average. Childcare teachers' perceived job stress was lower than average. Second, Childcare teachers' perceived ego-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as having significant influences on childcare teachers' perceived job stress. Optimistic thinking and anger control among sub-factors of childcare teachers' perceived ego-resilience and environmental mastery among sub-factors of childcare teachers' perceived psychological well-being explained 46% of variance in childcare teachers' perceived job stress. These results provide informations for reducing job stress in childcare teacher and suggest the basis of an education program for childcare teacher.

▶ *Key Words* : *childcare teachers, job stress, ego-resilience, psychological well-being*

논문투고	2013. 04. 11.
수정원고접수	2013. 07. 22.
최종게재결정	2013. 08. 15.